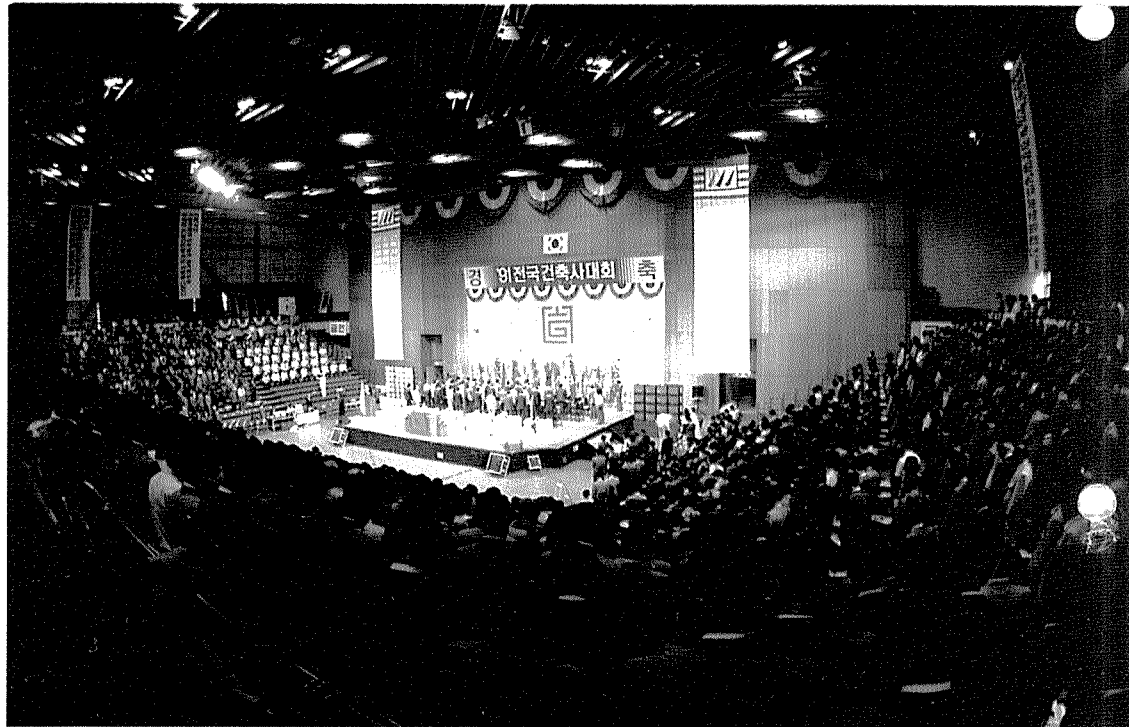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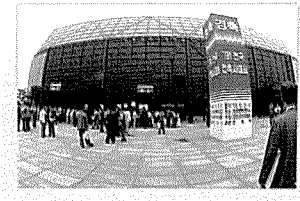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91 全國  
建築士大會



“21세기를 향한 건축”이라는 主題아래 建築士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協會를 중심으로 한 일체감 조성과 화합 및 건축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91 全國建築士大會가 지난 6월3,4일 양일간 이진설 건설부장관,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 김용채 국회건설위원장 등 각계 인사와 전국 3천6백여 건축사들이 자리한 가운데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21세기의 先進國으로의 도약을 위해 새로운 文化의 創造者로서의 建築士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人間環境과 새로운 미래기술을 모색하는 場으로서 특별강연 및 연수뿐 아니라 올바른 건축환경조성을 위한 건축법 및 건축사법 등 관계 법령개정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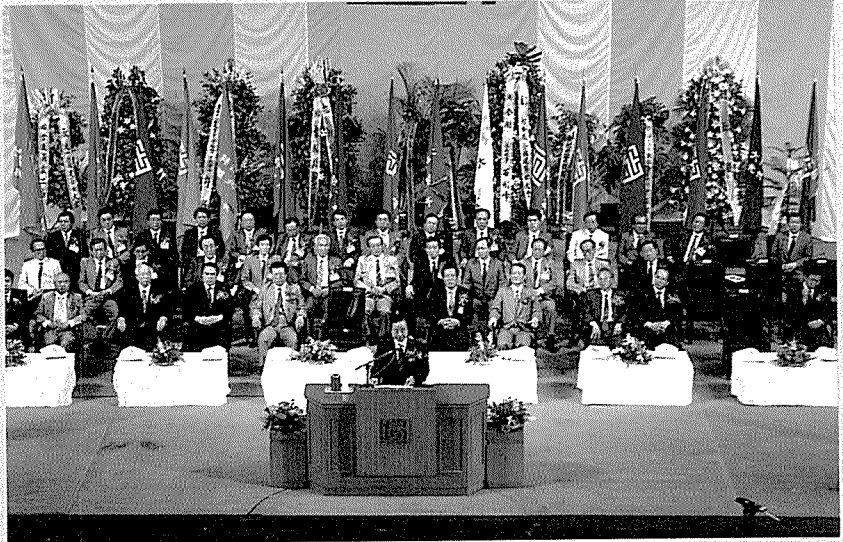
이날 대회 개최식에서 吳雲東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천년대를 향한 우리 건축계의 위상을 정립하며 지도층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대회의의를 설명하고 참다운 건축문화 부흥을 위한 과제로서 건축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 지방화에 적합한 건축제도의 정착노력, 첨단과학시대의 도래에 따른 대응능력 배양 등을 제시하며 「우리 모두의 의지와 욕구를 한데 묶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스스로 다짐하고 꿈을 펼치며 21세기를 향한 조형창작 예술인으로서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했다.





4

- ① “21세기를 향한 건축”을 모색하고 새로운 문화창조자로서의 건축사의 길을 모색한 '91전국건축사대회 개최식 전경
- ② 전국의 3천 6백여 회원이 모인 가운데 2천년대를 향한 우리 건축계의 위상을 정립하며 지도층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개최사를 하는 오운동 회장
- ③ 전국 3천6백여 회원 일등은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의 책임의식을 더욱 새롭게 하기 위해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 ④ 대회기를 필두로 하여 전국 회원들의 화합을 상징하듯 본부를 비롯한 각 시도지부기가 입장, 우의와 정진을 다짐하였다.
- ⑤ 대회장에는 정부 및 국회 인사들뿐만 아니라 대한건축학회, 한국주택사업협회 등 각계 단체에서 대표들이 참석, 축하하였다. 사진은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이 축사를 통해 건축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축하하는 모습
- ⑥ 건축환경 개선을 위해 개최된 건축관계법 토론회는 회원들뿐만 아니라 각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5



◆大會참석 내빈

- 이진설 건설부 장관
-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
- 김용채 국회건설위원장
- 김운환 국회의원
- 신경식 국회의원
- 신현식 대한건축학회 회장
- 이운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 류근창 한국주택사업협회 회장
- 이동락 대한설비공사협회 회장
- 박 승 전건설부 장관
- 권태문 인천대 건축공학과 교수
- 허명재 인천대 건축공학과 교수
- 이강훈 충북대 건축공학과 과장

◆축하 화환 접수

-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
- 김대중 신민주연합당 총재
- 이인구 국회의원
- 최이호 국회의원
- 윤도근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 신현식 대한건축학회 회장
- 허 석 중소주택사업자협의회 중앙회 회장
- 변봉덕 한양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 석강봉 (주)금강 대표이사
- 유순홍 세봉특수산업(주)대표이사
- 조학준 세기산업기술(주)대표이사

6

# '91전국건축사대회를 마치고

金榮洙 / 대회집행위원장

## 1. 文化와 創作의 나라, 國民위에 퍼고

'91전국건축사대회의 환성과 열기가 아직도 가슴과 컷전을 울리는 듯 하다.

지난 6월 3~4일 이틀간에 걸쳐, 올림픽 역도경기장에서 펼쳐진 우리의 건축사대회는, 그야말로 감명깊은 일대 파노라마가 아닐 수 없었다.

전국의 건축사가 한 자리에 다 모였다는 그 엄청난 質量的 의미 뿐만 아니라, 國政의 고위책임자와 귀빈들의 면모에서 더욱 그러했고, 무엇보다도 대회의 규모와 내용면에서 홍보효과와 성과소득이 실로 컸기 때문이다. 방송과 신문을 통해, 건축사가 건축문화와 예술창작의 주역임을 세삼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건축사협회가 국가와 민족의 21세기를 열어가는 창조적 집단임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고 생각된다.

## 2. 대회주제와 건축의 비전, 「21세기를 향한 건축」

이번 대회의 主題는 「21세기를 향한 건축」에 초점을 맞추고 건축의 비전과 차원을 한 단계 앞서서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그 모토였다.

발상과 인식의 대전환기를 맞아 世紀末의 급변상황에 대응하면서, 21세기의 선진조국과 건축의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 보고자 함이었다.

주제의 성격상 미래지향적이고 광범위한 범주의 대상이어서, 짧은 시간으로는 무리하고 미흡한 점이 지적되기도 했으나, 출발과 준비를 위한 問題點의 제기와 거론에는 큰 효과와 의미를 남겼다는 평들이다.

오늘의 이 시점에서 우리의 건축을 성찰하고 또 관망해 보는 마음의 여유 또한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 3. 화합과 열기의 한마당·건축사의 밤

15개 시도지부의 장기자랑과 경품권 추첨은, 뽀빠이의 사회춤에 웃음과 흥분의 도가니였다.

농도질은 즉석코미디의 연출과 무대를 압도한 흥겨운 국악공연은, 忙中閑을 즐기는 우리 건축사들의 열기와 참모습을 보여준 밤 한때였다. 한껏 준비한 무대와 배경장치 그리고 대회장의 장식들은 조명을 받아 찬란하고, 경북지부의 장기자랑 우승과 부산회원의 승용차 당첨 때는 악단의 밴드소리와 함께 대회장은 떠나갈듯한 요란함으로 가득했다.

모든 것을 잊고 싶고, 서로들은 헤어지고 싶지 않은 짧은 밤이었다.

## 4. 과거와 미래의 架橋·연수교육

대회주제에 따른 특별강연은 「현대인의 적응위기와 건설인의 자세」였다. 朴昇 전건설부장관께서 해박한 연구지식과 행정경험을 살려, 오늘과 내일의 문제와 과제들을 명쾌한 논리로 역설한 명강연이었다.

CAD전시의 함께 연이틀간 멀티비전을 가동시켜 대회와 교육의 시각적 효과가 뛰어났다는 점은 특기할만한 일이었다.

여기에다 사무소업무의 전산화와 협회차원의 지원역할까지 제시된 것도 주목할 일이다.

건설부의 건축행정방향에 대한 것도, 도시의 환경과 색체에 관한 것도 좋은 강좌였지만, 내일의 전통건축과 풍수지리설의 미래적 접목에 대한 이색강좌도 흥미와 관심의 집중이었다.

과거를 살피고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짚어보는 충분한 가교적 역할을 한 연수교육이었고, 「21세기를 향한 건축」의 이미지는 어느정도 명확한 의미로 전달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 5. 「民主와 合理」의 한목소리·법개정 토론회

언제나 우리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인 「건축법과 건축사법의 개정」을 토론타에 올린 것은, 한창 추진중인 정부차원의 작업과 때를 맞추어 贊反과 攻防을 거친 나름의 結論을 도출하고 成事시키자는 목적에서였다.

法制委員會의 건의안에 학계의 의견과 당국자의 긍정적 언급이 있었고, 회원들의 의견도 활발히 개진된 열띤 분위기가 3시간 이어졌다. 民主的인 건축사법과 合理的인 건축법은 創作의 正道와 國民의 便益을 위한 지름길이기때, 대회와 교육의 말미를 전회원이 한마음 한목소리로 하이라이트를 장식한 그 값진 휘나레는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 6. 건축의 헌신—건축사의 위상을 생각하며

한마디로 '91전국건축사대회는 건축의 사회적 獻身과 21세기를 향한 건축사의 位相을, 대외적으로는 세삼 알리고 대내적으로 다시금 가다듬어보는 시의적절한 壯舉였다고 믿는다.

21세기의 선진조국에서 화려한 건축의 꽃을 마음껏 피워야 할 우리 건축사들은, 이번을 거울삼아 계속 이어질 전국대회를 통해서도 국가의 장래와 민족의 앞날을 책임지는 창조적 문화지성임을 마음속 깊이 여며야 할 것 같다.

다시금 우리 모두, 보람과 희망의 21세기를 펼쳐가는 진정한 주역임을 두손들어 자부해 본다.

참여와 긍지의 건축사,

성공과 자랑의 전국대회에 고개숙여 감사드리면서…….